

편집 후기



태풍, 홍수, 늦더위에 시달리다 보니 어
느새 계절은 바뀌고, 그렇게도 심하게 할퀴
고 지나간 들녘이건만 풍요로움이 넘실댄다.

아침 저녁으로 몸에 와 닿는 쌀쌀함에 옷
깃을 여미면서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지
난 여름을 아쉬워 하며 계절의 다양함과 자
연의 조화에 감사한다.

이제 가을호 발간작업도 끝나고 훌기분한
마음으로 대포잔을 기울이며 힘들었던일 즐
거웠던일을 되살리며 최선을 다했던가 반문
한다. 역시 많은 것이 부족했고 좀더 내실
있는 내용을 심기 위해서는 준비가 소홀했
음을 느낀다.

이번호에는 집필진중 여러분이 해외여행
등으로 원고수집에 차질이 생겨 전반적으로
작업이 늦어져 막판에 시간에 몰려 고생도
했으나 바쁘신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원고를
주신 집필진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建>

태풍과 수해등으로 유난히도 무덥고 길게
만 느껴지던 여름이 가고 들녘이 온통 황금
물결로 가득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았다.

화재로 인한 재해예방에만 치중해온 협회
로서는 지난 여름 풍수재로 인하여 1백20
억원의 막대한 손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됨으
로써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교훈삼아 종합방재기
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
짐해 본다.

우리 모두의 소망인 재난없는 복지사회건
설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
리며 그동안 풍·수재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을 드리며 옥고를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라
드립니다. <洪>

투고를 환영합니다

계간「방재와 보험」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론
보험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방재와 보험」지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내용

- 화재보험의 손해보상으로 성공한 사례
- 소방관의 체험담 또는 소방수기
- 화재현장 목격담
- 시, 수필, 수기, 콩트 등 문예작품

□ 보낼 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우편번호 150)
본협회 홍보부「방재와 보험」담당자 앞
문의전화 : 782-8156

□ 게재된 원고에는 소정의 교료가 지급됩니다.

防災와保險 1987 / 가을호 계간 / 비매품 <통권 제35호>

등록 / 마-827호 (1973년 10월 10일)

발행 / 1987년 10월 1일

인쇄 / 1987년 9월 30일

발행겸 편집인 / 이상규

인쇄인 / 성전문화인쇄 / 강재수

사진식자 / 창미문화사

발행처 / 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편집실 / 직통 782-8156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심천강령을 준수한다.

본지에 게재된 글의 내용은 당 협회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